

대화식 그림책 질문 카드

어른이 모두 설명하는 대신 아이가 그림을 보고 말·몸짓·소리로 이야기를 이끌도록 기다려 주세요.

그냥 읽기

어른이 글을 순서대로 읽고 아이가 듣습니다.

편안한 낭독과 이야기 흐름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아이가 그대로 듣고 싶어 하는 날에는 이 방식이 알맞습니다.

대화식 읽기

아이가 보고 표현하고, 어른이 기다린 뒤 말을 조금 넓혀 줍니다.

그림과 아이의 경험으로 대화가 이어지고, 아이가 점차 이야기꾼 역할을 맡습니다.

아이의 답을 잇는 네 단계

질문보다 답 다음이 중요해요

- 초대하기 : 그림을 가리키거나 한 가지 질문으로 말·몸짓·소리를 불러요.
- 기다리기 : 바로 답을 대신하지 말고 아이의 시선과 표정을 살피요.
- 늘리기 : "멍멍"에 "작은 강아지가 멍멍 짖네"처럼 한두 낱말을 보태요.
- 돌려주기 : 넓어진 문장을 자연스럽게 돌려주고 아이에게 다시 차례를 줘요.

한 권을 다 묻지 않아도 괜찮아요

- 아이 관심이 머문 장면 두세 곳이면 충분해요. 대답하지 않으면 어른 생각을 짧게 말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 말하지 않는 영아의 가리키기·웅얼이·시선도 대화의 차례로 받아 주세요.

페이지별 질문 예시

아래 질문은 가상의 그림책 장면을 위한 자체 예시입니다. 한 번에 하나만 골라 아이의 답을 기다리세요.

1

표지 · 보고 예상하기

읽기 전

-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니?” · “어디로 가는 이야기일까?”
- 영아에게는 “고양이 어디 있지?”라고 묻고 가리키거나 시선을 기다려요.

2

초반 · 그림 속 정보 찾기

처음 장면

- “누가 무엇을 하고 있니?” · “빨간 우산은 어디에 있니?”
- 한두 낱말을 말하는 아이에게 “기쁠까, 속상할까?”처럼 선택지를 줘요.

3

중간 · 까닭과 다음 장면 생각하기

사건 장면

- “왜 이런 표정일까?” ·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 아이 답에 “그렇게 생각한 그림 속 단서가 있니?”라고 한 번만 이어 물어요.

4

끝 · 기억과 경험 연결하기

마지막 장면

-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나?” · “네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 잠자리에는 질문을 두세 번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보자”로 편안히 마쳐요.